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2009년 중국보험산업 10대 뉴스

□ 중국의 주요 경제일간지 증권시보(证券时报)는 2009년 한 해 동안 보험업계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파급력이 컸던 뉴스 10개를 선정해 발표함.

- 보험업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및 연간 수입보험료 1조 위안 돌파 : 생명보험 부문에서 방카슈랑스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보장형 상품이 호조를 보이는 등 채널 및 상품 분야 등에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, 2009년 11월에 최초로 1조 위안의 누적 수입보험료를 달성함.
-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 확대 및 자동차 책임보험 연보 발표 : 총 11개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 시장에 진출하고, 또한 강제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 연보가 2009년 6월 최초로 발간됨.
- 은행의 보험회사 지분투자 인정: 2009년 11월 <상업은행의 보험회사 지분투자 시범관리방법>이 시행되자 곧바로 교통은행과 베이징은행이 각각 중바오캉련(中保康联), 서우창애트나생명(首创安泰人寿)의 지분을 인수함.
- 보험회사 자산운용 범위 확대: 지방채, 무담보회사채 등의 채권과 오피스 빌딩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면 허용되면서 자산운용 대상이 크게 확대됨.
- 보험회사 영업인력 구조개혁 일정 발표: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약 200만 명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인 다원화 정책을 전개하기로 하고, 약 5년간 시범 운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.
- 보험산업 신뢰기준칙 마련: 새로운 회계처리 개정 준칙이 시행됨.
- 보험개혁 시범지역 확대: 기존에 보험개혁 시범지구로 지정된 다렌, 선쩐, 톈진, 충칭 등의 지역 뿐 아니라 상하이, 허베이성도 추가로 포함됨.
- 중국핑안보험의 선전개발은행 지분 확보 : 중국핑안보험은 선전개발은행의 지분 30%를 확보해 최대 대주주가 됨.
- 인민보험그룹의 구조조정 시행: 국영보험회사인 중국인민보험그룹은 작년 1년 여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음.
- 타이핑양보험의 홍콩증시 상장: 작년 12월 말 상장된 타이핑양보험은 약 240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받아 보험금 지급능력이 300% 이상 급증함.

(증권시보, 1/4)